



존경하는 빛과진리교회 귀중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담임목사님과 온 교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충신 글로벌 M.Div. 학생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값진 섬김과 후원을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개혁주의 신학대학을 넘어 세계 개혁신학의 허브 대학으로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품고 2015학년도부터 영어 M.Div. 과정을 시작하여 올해 2월까지 총 7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는 16명의 재학생들이 수학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10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강도사고시가 영어로도 출제되어 우리 신학대학원 글로벌 M.Div. 졸업생들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이는 충신의 개혁신학으로 무장된 세계적인 일꾼들이 배출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영어 M.Div. 과정 학생들은 교단 내 여러 교회에서 영어예배 사역 및 설교, 이주민 사역, 교회학교 사역, 찬양팀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과 훈련을 병행하며 향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회자와 선교사로 섬기기 위해 열심히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선교의 한 축을 담당할 충신 글로벌 M.Div. 학생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이 가정과 교회, 하시는 모든 일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학년도를 마치며

충신대학교 박성규 총장, 강웅산 신대원장 외 교직원, 학생 일동 올림

빛과 진리 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 사역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빌립보서 1:3-5). 여러분의 신실한 신학 공부 지원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일하시는 것에 대한 깊은 증거입니다.교회와 개인 성도들을 통해 주신 여러분의 관대한 재정 지원으로 인해 저는 공부와 영적 형성에 전심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았듯이, 저 또한 여러분의 희생적인 나눔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여러분이 자신들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투옥 소식에 제 마음이 아프며, 그분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격려의 편지들을 썼던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갇힌 자들을 생각하여 함께 있는 것 같이 하고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여 너희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이 하라”(히브리서 13:3)고 하셨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아내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대하신 의사 되신 주님께서 그분을 자신의 완전한 뜻대로 강건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큰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앎이라”(야고보서 1:2-3)고 격려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저를 깊이 감동시키고 고무시킵니다.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영적 멘토링과 끊임없는 기도로 여러분은 제 신앙생활에 큰 힘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짐을 져 주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라디아서 6:2)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제 신학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투자는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이며 제가 담당할 미래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귀한 것입니다.여러분의 관대함과 신실함에 주님께서 풍성히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련의 때에 함께 서 있는 우리로서는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친히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리라”(베드로전서 5:10)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제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섬김의 사역을 위해 준비시켜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빌립보서 1:9), 그리고 이 시련의 계절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힘이 특별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비 산 명, 충신대학교 글로벌 M.Div 3학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립보서 4:19)

2024학년도를 마치며